



The Ascension of Christ(1636), Rembrandt, Alte Pinakothek, Munich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사도 1,10)

■ 미사 전례

- 제 1독서: 사도 1,1-11
- 화답송: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 제 2독서: 에페 1,17-23
- 복음 환호송: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가 함께 있으리라. ◎
- 복음: 마태 28,16-20

- LA 대교구 지침에 따라 성당 출입과, 모든 미사 및 모임을 중지합니다.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 성당 사무실 전화문의 및 근무시간

요 일	시간
수,목,금	오전 9:00 ~ 오후 5:00
토요일	오후 1:00 ~ 오후 7:00
주 일	오전 8:00 ~ 12:00

성삼 소식

우리들의 정성 (2020. 5. 17현재)	
교무금	5,590.00
감사 헌금	2,560.00
건축 헌금	180.00
성소 후원금	40.00
교무금(16명) 고대준, 권오찬, 김천희, 김 호, 노환일, 박기종, 신동욱, 이강현, 이달근, 이영옥, 이용일, 이윤희, 이종욱, 임상도, 태윤주, 한경구, 건축헌금(2명): 김천희, 이달근 감사헌금(5명): 박기종, 이영옥, 이윤희, 2 익명, 성소후원금(11명)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방지와 극복을 위한 기도

- 합동 묵주 고리기도 매일 저녁 8:00
- 기간: 4월 6일 ~ 5월 31일(주일)까지
- ※ 사도신경, 묵주기도, 성모송 10번

요일	신비	구역별
월요일	환희	1구역: 신비 1단 2구역: 신비 2단 3구역: 신비 3단 4구역: 신비 4단 5구역: 신비 5단
화요일	고통	
수요일	영광	
목요일	빛	
금요일	고통	
토요일	환희	5구역: 신비 5단
일요일	영광	

<주님 승천 대축일에 성삼성당 교우 분들께 드리는 글>

기도 안에서 늘 함께 하는 우리 성삼성당 모든 신자 분들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Safer at home (외출 자제) 행정 조치가 길어짐에 따라 우리의 마음도 위축되는 것이 아닌가 염려됩니다. 주님의 제단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거룩한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몸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신앙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때일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어지러움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고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중심을 잡을 수 있을 것이고 신앙적인 내면은 충만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기도에 관한 강론 말씀에 귀 기울여 봅시다. 교황께서는 지난 5월 20일 수요일 일반알현을 통해, “기도는 희망의 문을 열어줍니다”라는 주제로 강론을 하셨습니다. (2020년 5월 24일 주님 승천 대축일에. 주임사제 양태현 그레고리오 올림)

*** 주님 승천 대축일 방송 미사 안내 (유튜브 - KCBC US) ***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창조의 신비를 묵상하면서 기도에 관한 교리 교육을 계속 이어갑시다. 생명, 우리가 존재한다는 이 단순한 사실이 인간의 마음을 기도로 열어줍니다.

성경의 첫 페이지는 장엄한 감사의 찬미가와 비슷합니다. 창조에 관한 이야기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선과 아름다움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후렴구로 이뤄져 있습니다. 하느님이 당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생명으로 부르시니,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하느님이 말씀으로 빛과 어둠을 분리하시고, 낮과 밤이 반복되게 하시며, 계절을 바꿔게 하시고, 다양한 동식물로 다채로운 세상을 여셨습니다. 혼돈을 빠르게 물리치는 이 풍요로운 숲에서, 마지막으로 인간이 등장합니다. 인간의 등장은 만족과 기쁨을 증폭시키는, 넘쳐나는 환희를 자아냅니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창세 1,31). 좋고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피조물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창조의 아름다움과 신비는 인간의 마음 안에 기도를 불러 일으키는 첫 번째 움직임을 만들어 냅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2566항 참조). 시편 제8장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러러 당신의 하늘을 바라봅니다. 당신 손가락의 작품들을 당신께서 굳건히 세우신 달과 별들을.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4-5절) 시편 저자는 자기 존재의 신비를 묵상하고, 머리 위에서 반짝이는 별이 가득한 하늘을 보며 - 천체 물리학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 광대함을 보여줍니다 - 어떤 사랑의 계획이 이처럼 강력한 작품 뒤에 있어야 했는지 묻습니다. (...) ‘이 광대무변 안에서 인간이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하고 말합니다. 또 다른 시편은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가”(시편 89,48 참조)라고 말합니다. 이어 인간은 태어나고 죽는 존재이며, 매우 연약한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 전체에서, 인간은 아름다움의 풍요로움을 알고있는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태어나 죽고, 오늘 있다가도 내일 사라지는 작은 존재인 인간은 이 (창조의) 아름다움을 알고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움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도는 ‘놀라움’ 혹은 ‘경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우주의 크기와 비교하면 극히 미소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업적조차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입니다. (...)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기도 안에서 자비심을 강하게 체험합니다. 우연히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주의 비밀은 누군가가 우리의 눈빛에서 만나는 자비로운 눈길 안에 있습니다. 시편은 우리가 신들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어졌지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썼다고 말합니다(시편 8,6 참조). 하느님과의 관계가 개별 인간의 위대함입니다. 인간의 영예로움입니다. 우리는 본성상 거의 아무것도 아니고 미소하지만, 그러나 소명으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위대한 임금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그러한 체험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온갖 괴로움으로 인해, 때로는 우리 안에서 기도의 선물을 질식시킬 위험에 빠지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감사의 불씨를 다시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별이 빛나는 하늘과 일몰과 꽃 (...) 등을 묵상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체험이 어찌면 성경의 첫 페이지가 쓰여진 기초일지도 모릅니다.

창조의 위대한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누군가는 감사의 이유를 찾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 하느님을 찬미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희망의 첫 번째 힘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희망은 커지고 이어집니다. 저는 기도가 희망의 문을 열어 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분명 희망은 존재하지만, 나의 기도로 그 문을 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진리들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곧, 우리 삶은 그 모든 어려움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경이로운 은총으로 충만하다는 사실을 먼저 자기 자신들과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항상 지켜지고 보호받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사람은 희망이 낙담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이 죽음보다 더 강하고, 비록 그 시간과 방법은 모르더라도 언젠가는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얼굴에 빛의 광채를 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어두운 날에도 태양이 그치지 않고 그들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여러분을 밝혀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밝혀주고, 여러분의 마음과 얼굴을 밝혀줍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 가장 큰 고통의 시기에, 기도는 여러분을 밝혀줍니다.

우리 모두는 기쁨을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기쁨을 가져오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나쁜 소식과 여러분을 슬프게 만드는 소식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까? 우리 모두는 기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삶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슬픔과 비통으로 인생을 소모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그저 살아있다는 것에 만족하며, 하느님을 찬미합시다. 우주를 바라보고,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또한 우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시다. “당신은 존재하십니다. 당신은 당신을 위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느님께 감사하고 찬미하도록 이끄는 마음의 동요를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에서 하느님의 서명을 읽을 수 있는 위대한 임금의 자녀들이며, 창조주의 자녀들입니다. 그 피조물은 오늘날 우리가 제대로 지키고 있지 못하지만, 그 피조물 안에는 그것을 사랑으로 창조하신 하느님의 서명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는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 끝 -

<성모성월 기도 (마리아의 노래)>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을 잉태하신 뒤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하셨다. 그 때 엘리사벳의 찬양을 받으시고 성모님께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찬송하신 노래이다.)

-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내 마음 기뻐 뛰노네.
- 그분은 비천한 당신 종을 굽어보셨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
-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 그분 자비는 세세 대대로 그분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미치리라.
- 그분은 당신 팔로 권능을 펼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흠으셨네.
-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비천한 이를 들어 올리셨네.
-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고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네.
- 당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돌보셨으니
-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그분의 자비 영원하리라.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 ✦ 기도합시다.

저희를 하느님 아버지께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를 저희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전구자로 세우셨나이다. 비오니,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가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 아멘.



고려 여행사 3388 W. 8 th St. LA CA 90005 한 레지나 / 레오 Tel 213-385-6611	전 명세(패트릭), CPA RE BROKER INDIVIDUAL&CORP TAX, ACCOUNTING SERVICE, ESTATE PANNING, ADVANCED FINANCIAL & RETIREMENT PLANNING 전 패트릭&안나 (213)380.6437 patrickchyun@hotmail.com	올림픽 타운 꽃집 Olympic Town Flowers 1101 S. Vermont Ave #107 (버몬트 + 11가 코너) (323)RED-ROSE (213)480-3102 김 미카엘라(예옥)	백양 · 쌍방울 (LA 속옷 전문 매장) 한국산 유명속옷 브라자거들 양말·스타킹·잠옷·백일·돌복 LA 웨스트민스터점(9가+ 웨스트민) 서 엘리사벳 213-487-7676
Fire Way Fire Protection 소화기 점검해드립니다. 김항철(요셉) 213-352-3554 김 호노리나 213-200-3049 EE#25138	건강보험(커버드CA), 메디칼-메디케어, 생명보험(Life), 연금(IRA), 무료상담 213-249-2127 예영해(프란치스코)	글렌데일 브랜드 꽃집 1134 E. Chevy Chase Dr Glendale, CA 91205 ☎ 818-244-1359 Web: www.brandflorist.com 서 베로니카	결혼정보회사 듀오 USA 한국 며느리, 한국 사위, 믿을수 있는 듀오 USA 에서 인연을 만드세요 세실리아 : 213-383-2525(LA) 201-242-0505(NY)
메디케어/오바마케어 생명/건강/사업체/자동차 박 헬레나(에실) ☎ 213-500-9393	이길웅(분도)치과 Vine Dental Care ☎ 323-465-2828 954 Vine St. Los Angeles Melrose + Vine	Meeyoung J. Kim D.D.S Howard J. Yang D.D.S. <김 율리아, 양 파비아노> 437 W. Colorado St. Glendale ☎ 818-244-0299 일반치과, 치아미식, 교정치과	보스톤 치과 구강호 토마스AQ 213-380-2727 3663 W. 6th St. #203A. LA 한인타운 6가 와 아드모어 LA Medical Center
윤주익(클라라) Executive Manager Law Offices of Eugene Yun 부동산, 회사설립, 유언/상속, 교통사고, 형사법 213-388-3535/818-433-2891(C) www.eugeneyunlaw.com	대한 장의사 이 미카엘 213-700-1788	한 태 호 변호사 법률 그룹 KENNETH T. Haan & associates A PROFESSIONAL LAW CORPORATION 민사소송/사고, 상해/노동법/이민법 3699 Wilshire Blvd. Suite 860 LA Tel (213)639-2900 www.haanlaw.com 한 마리노, 클라라	36년 전통의 한국장의사 HAN KOOK MORTUARY 323-734-5656(LA) 562-868-0788(세리토스/놀릭) 장례에 관한 모든 절차를 성심껏 도와드립니다.
불란서 안경검안과 FRANCE VISION OPTOMETRY 시니어 HMO 지정점 3104 W. Olympic Bl. LA. ☎ 213-487-1001 Elizabeth & Dr. Linda Lee (교우 특별 봉사)	미주 자동차 정비 MIJU AUTO REPAIR & BODY 415 W. Broadway, Glendale (818)247-4400 이 크리스티나 & Karl	안진환(Tony), CPA 안토니오 & 스텔라 2140 W. Olympic Bl. #508 (213)344-9137/(213)380-5070	서 승혜 나탈리아 공인 회계사 3450 Wilshire Blvd #302 Los Angeles, CA 90010 ☎ 213-380-8389/213-272-4988 e-mail: jeune1004@gmail.com
Hankook Plumbing 가정, 식당, 상가 모든 플러밍 설비 및 수리 아무리 작은 일도 성심껏 봉사 "막힌 곳은 뚫어드리고 뚫린 곳은 막아드리고" 홍 벤자민 818-321-4776	이동현 토마스 아퀴나스 내과/노인 의학과 213-674-7758 2727 W. Olympic Blvd. Suite 309 LA, CA 90006 한남체인 건너편 이전계원	늘 웃는 치과 임플란트·교정·보철·일반치과 966 S. Western Ave. #207 (323)734-3710, (323)734-3720 이 요한 DDS, Ph.D	구 본옥 한의원 사암침(빠른 효과) (8가와 Hoover 코너) 213-427-1299
이호제 MD Ho je Lee 가정 주치의 Glendale (818)246-3306 K-Town (323)452-0656	뉴스타 부동산 김영재(요한) 213-840-1237 Office: 213-385-4989 newjohnkim@newstarrealty.com BRE#: 02033433	WESTERN EXPRESS 자동차 종합 정비 OIL CHANGE·TUNE-UP·BRAKE ·CHECK ENGINE·SMOG CHECK 258 S. Western Ave. LA 90004 (213)365-0333 강안토니오	금강안경검안과 GOLD OPTOMETRY L.A. : (213)384-1001 (로데오 플라자 몰내) G.G. : (714)530-1001 (H 마트 몰내) 요셉 & 루시어 김 . M. E. 21가
수녀님 참기름 멕시코 농민 일자리 제공을 위한 건강하고 맛있는 참기름 주문전화: 213-220-1711 kakaotalk ID: puracollective www.puracollective.com	태양 여행사 2707 W. Olympic Blvd. #101 LA, CA 90006 서울 사무소 02-775-9702 김경희(골롬바) 213-252-9700	두드림 종합 보험(주) 대표: 제임스 양(야고보) 생명/은퇴연금/로딩케어/사업체/주택 자동차/건강/메디케어플랜 ☎ 213-388-8055 LA 월서 + 세라노	 애틀미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화장품 생활 필수품. 조 마리아 818-653-3313 고 소피아 818-522-4073